

시장 규모 및 성장성 (TAM-SAM-SOM 분석)웹소설 시장은 단순한 텍스트 콘텐츠를 넘어, 영상화 및 글로벌 확장의 핵심인 '원천 IP(Intellectual Property) 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TAM] 전체 거점 시장: 글로벌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장(약 20조 원+)범위: 전 세계 웹소설, 전자책 및 디지털 연재 플랫폼 시장 전체 (네이버 웹툰, 아마존 킨들 등).현황: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낵 컬처'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독서 인구가 폭증하며 서사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시장입니다.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71477](https://www.kocca.kr/n_content/kocca_vol37/02.html#:~:text=국내 웹툰 기획·제작 시스템에서는 웹소설의 웹툰화(노블코믹스)가 웹툰, 제작자들 역시 노블코믹스 중심의 기획이 중요하다고 여겼다.[SAM] 유효 시장: 국내 웹소설 및 K-IP 원천 시장(약 1.3조 원+)범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국내 웹소설 시장(약 1조 390억 원) + 해외 수출 K-콘텐츠 원천 IP 가치.현황: 네이버(왓챠), 카카오(타파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이 북미와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며 'K-스토리'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링크:
<a href=)i링크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9132>[SOM] 수익 시장: 국내 프로/지망 작가 및 CP사 솔루션 시장(약 500억 원+)범위: 국내 유료 연재 작가(약 20만 명)와 500여 개 매니지먼트사(CP)의 편집/검수 예산.현황 (Contextor의 기회): 매일 수천 편의 신작이 쏟아지는 '콘텐츠 포화' 상태에서, 독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정밀 분석 및 검수 도구에 대한 지불 의사가 가장 높은 실질적 타겟 시장입니다.링크: <https://www.etnews.com/20231212000243>시장 분석 결론: "포화된 시장 속 '질적 완결성'의 승부" 시장은 거대해졌으나 역설적으로 매일 쏟아지는 수천 편의 신작 사이에서 독자의 선택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개연성, 텐션, 독자 타겟팅 등 '질적 완결성'을 확보한 작품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Contextor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작가와 기업이 실패 비용을 줄이고 '대박 IP'를 선별/완성할 수 있게 돋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작가의 페인포인트: "지옥의 일간 연재와 고립된 창작"웹소설 작가들은 전례 없는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일간 연재의 압박: 주 5~7회, 회당 5500자 이상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개연성 검토나 빠센 관리를 작가 혼자 완벽히 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피드백의 부재: 유로 연재 전까지 작가는 자신의 글이 시장에 먹힐지 알 수 없다. '댓글'이 달리기 전까지는 고립된 상태에서 창작하며, 이는 잦은 슬럼프와 연재 중단으로 이어진다.전문 편집자의 부족: 한 명의 PD가 수십 명의 작가를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특성상, 문장 단위의 세밀한 피드백을 주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링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73>플랫폼 및 기업의 니즈: "검수 비용의 폭발적 증가"플랫폼 입장에서는 '콘텐츠 품질 관리'가 곧 비용이다.모더레이션(검수) 리스크: 혐오 표현, 저작권 침해, 젠더 갈등 유발 요소 등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브랜드 타격이 막대해진다. 현재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이 매우 높다.IP 선별의 어려움: 쏟아지는 원고 중 어떤 것이 '대박'이 날지 선별(큐레이션)하는 데 엄청난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다. 이를 보조할 정량적 지표가 절실하다.기술적 트랜드: "생성"에서 "분석"으로 AI기술의 활용 단계가 변하고 있다.1단계(단순, 생성): "다음 문장을 써줘" → 문맥이 끊기고 작가의 개성이 사라져 실제 작가들은 잘 쓰지 않는다.2단계(교정, 교열): "맞춤법 고쳐줘" → 단순 기능에서 그친다.3단계(서사 분석 - 현재): "내 글의 개연성이 맞아? 독자가 이 부분에서 지루해 할까?" ⇒ 현재 Contextor가 타겟팅하는 지점이다.

작가의 고유 문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구조적 결함'만 찾아주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조하고 있다.요약

현재 시장은 콘텐츠 양의 폭발과 전문 인력의 부족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기준 AI도구들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웹소설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거시적이어서, 실제 수정작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원고지 위에 직접 형광펜을 짓는 하이라이트 기능은 작가들에게는 '24시간 대기하는 나만의 편집 팀'을 갖게 되는 혁신적인 경험일 것이다.실제 '목소리' (Voice of Customer) 데이터 커뮤니티(문피아 자유게시판, 디시인사이드 장르소설 마이너 갤러리, 작가 커뮤니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만사항을 '증거'로 수집하세요.<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munpia#~:text=웹소설 작가들을 위한 도서관>- 문피아 갤러리에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예시: "독자들이 갑자기 개연성 없다고 별점 테러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연재하다 보니 주인공 성격이 변했다는데 앞부분 다시 읽기 너무 힘들어요."이런 실제 고통(Real Pain)을 인용구로 넣으면 시장 조사에 생동감이 생깁니다.경쟁사 분석좌표의 부재: 거시적 비평 vs 미시적 교정대부분의 경쟁사(타임락 등)은 분석이 끝난 후 별도의 PDF 리포트나 요약 텍스트를 제공한다.경쟁사의 한계: '전반적으로 문체가 딱딱하다'라는 말은 작가에게 '공부'를 시킬 뿐, '작업'을 돋지는 못한다. 작가는 다시 원고로 돌아가서 어디가 딱딱한지 직접 찾아야 한다.Contextor의 빈틈 공략: 우리는 문장 단위의 인덱싱 기술을 통해 원고 위에 직접 형광펜을 짓는다.차별점: "21번 문장이 딱딱하니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좌표를 찍어준다. 이는 서비스가 '평론가'에 머무느냐, 실제 '편집 도구'가 되느냐의 결정적 차이이다.'취향'의 일반화: 보편적 독자 vs

장르적 독자일반적인 AI는 ‘좋은 글의 기준’을 교과서적인 문법과 윤리에 둔다. 경쟁사의 한계: 웹소설은 장르별로 ‘문법’이 완전히 다르다. 로맨스 판타지에서는 ‘남주의 집착’이 매력적이지만, 일반적인 AI는 이를 ‘폭력적’이라고 경고할 수 있다. 무협의 ‘한자어 남용’을 ‘가독성 저해’로 치부하기도 한다. 차별점: 장르의 특수성을 ‘오류’가 아닌 ‘매력’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맥락 기반 평가를 제공한다. 장기 기억의 손실: 로컬 응집성 vs 글로벌 개연성 대부분의 AI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 제한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잊어버린다. 경쟁사의 한계: 1화에서 ‘주인공은 원순잡이’라고 설정했는데 10화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휘둘렀다’면, 일반 AI는 문장 자체에서 문법적 오류가 없으므로 통과시킨다. 차별점: 우리는 LangGraph의 Summary node를 통해 원고 전체의 핵심 맥락을 압축하여 모든 에이전트에게 상시 공유한다. 차별점: 문장 간의 연결성을 넘어, 작품 전체의 설정 일관성을 체크하는 개연성 에이전트를 운영한다. 문학적 허용의 무시: 단순 검열 vs 창작 모더레이션 기준의 유해물 탐지 AI는 B2B 보안에 최적화되어 있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경쟁사의 한계: 소설 속 악역이 내뱉는 비속어나 차별적 발언은 서사 구축을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존 AI는 이를 단순 유해 콘텐츠로 분류하여 삭제를 권고한다. Contextor의 빈틈 공략: 우리는 HateBias, Trauma 에이전트에게 작가의 의도와 독자적 불쾌함 사이의 경계를 학습합니다. 무조건적인 검열이 아니라, “이 표현은 서사상 필요할 수 있으나, 특정 독자층에게는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전략적 조언을 건넵니다. ‘과정’의 불투명성: 블랙박스 vs 화이트박스 사용자는 AI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경쟁사의 한계: “결과 70점”이라는 숫자만 보여주는 블랙박스 방식이다. 사용자는 AI의 판단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 Contextor의 빈틈 공략: 우리는 LangGraph의 각 노드 실행 과정을 시각화하고, QA Scores를 통해 AI가 스스로 자신의 분석 결과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보여준다. 차별점: 분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AI를 ‘도구’가 아닌 ‘동료’로 느끼게 만드는 UX를 제공한다. 정리: 우리가 가져갈 ‘한 끗’의 차이

경쟁사들이 “AI가 글을 분석해 준다”는 기능(Function)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작가가 수정을 완료할 수 있게 돋는다”는 워크 플로우에 집중해야 한다. Target: 단순히 내 글의 수준이 궁금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오늘 밤 안에 수정을 끝내고 마감을 지켜야 하는” 프로 및 세미프로 작가 Action: 리포트를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된 문장을 클릭하고 수정안을 적용하게 만드는 것처럼 경쟁사 분석 뷔튼 핵심 기능 및 포지셔닝 범용 AI 포털(소설/블로그 초안 생성) 장점 접근성, 하이퍼클로버x 탐색으로 한국어 능숙 단점 정교한 비평보다는 생성에 치중된 노벨라사이트:

https://novela.so/?utm_source=google&utm_medium=cpc&utm_campaign=pmax_1219&utm_content=final_url&utm_gad_source=1&utm_gad_campaignid=23380562603&utm_gbraid=0AAAABB8mCCdcUHbiNPaLThu2l5qYn-T9&utm_gclid=CjwKCAiA4KfLBhB0EiwAUY7GAfazdZ0uTZeC_e-Tr9H_kyhvnZaoDi6Z35x2OpLC6SyjmDfx5LYHxoCDrEQAvD_BwE 핵심 기능 및 포지셔닝 웹소설 전용 생산형 도구(설정집 + 집필) 장점 작가 워크플로우 통합 단점 AI 기능이 보조적이며 정밀한 개연성/데이터 분석은 초기 단계 사용 후기 문서를 직접 입력해야만 함 맞춤법 검사만 존재 플랫폼으로 타이핑으로 개연성 관리해야 함 타임팅 핵심 기능 및 포지셔닝 AI 기반 교정 및 피드백 에디터 장점 공모전, 연계, 편집자 관점 피드백 제공 특정 플랫폼 종속성에 강함 사용 후기 문서를 직접 입력해야만 함 플랫폼/캐릭터/세계관/독창성/몰입도/구조/문체 및 표현 관점에서 평가 문제를 지적해주나, 해당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려움. 이는 장기 집필의 경우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함. feedback이 누구를 대상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음 최종적으로 Contextor은 persona 설정, highlight가 큰 강점을 지님 반대로 너무 범용성을 챙기려고 하여, 큰 틀에서 아쉬움이 존재 만약 범위를 줄이되 타임팅 + persona 설정 + highlight를 가져간다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차별화 전략 대부분의 AI 글쓰기 도구는 하나의 거대한 프롬프트에 모든 요구사항을 집어 넣는다. 이는 LLM의 주의력 분산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성 분리: Tone, Logic, Trauma, Cliche 등 각 분야에 특화된 7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맞춤법 에이전트는 오직 오탈자만 보고, 개연성 에이전트는 오직 인과관계만 본다. 이는 분석의 정밀도를 극대화 한다. 사용자 경험 차별화: “가상 독자 페르소나” 시뮬레이션 가장 강력한 차별점은 “누구에게 읽힐 것인가”를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독자 대변인: “이 글은 좋습니다”라는 모호한 칭찬 대신, “20대 로판 매니아 김영희씨는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행동이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 하이라이팅 시스템: 분석 리포트와 원고를 분리하지 않는다. 원고 위에 직접 색상별 하이라이트를 입혀, 어느 문장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는 수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시장/비즈니스 차별화: “창작”과 “검수”의 가교이 서비스는 작가뿐만 아니라 플랫폼(B2B)에게도 강력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context-Aware Moderation(문맥 인지형 검수): 기존의 키워드 차단 방식은 “죽여버리겠다”는 악역의 대사까지 검열한다. Contextor은 서사적 맥락을 이해하여, 불필요한 혐오 표현과 서사상 필요한 갈등을 구분해낸다. 이는 플랫폼의 운영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다. 개연성 오류 사전 방지: 주간 연재 체제에서 작가가 놓치기 쉬운 설정 오류를 에이전트가 잡아줌으로써, 작품의 완결성을 높이고 독자

이탈을 방지한다.작가 교육 효과: 수정 제안 시 “왜 이렇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작가의 정기적인 집필 역량 강화를 돋는 ‘AI코치’ 역할을 수행한다.사용 예시 단순 LLM(GPT5.2)

이 글을 읽고 편집자 관점에서 서술해줘

다음은 편집자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고 서술한 분석이다.

(텍스트는 현진건의 단편 운수 좋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1. 작품의 핵심 기획 의도(편집자 시점 요약)이 작품은 서사의 아이러니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구조 실험이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은 끝까지 독자를 속이는 장치이며, 작가는 독자의 감정 예측을 정확히 계산한 상태에서 행복-기대-안도-탐욕-지연-비극의 흐름을 설계했다.

편집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은 감정 과잉이 아니라 감정 지연(delay)을 통해 충격을 키우는 구조인물의 비극보다 사회 구조의 잔혹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향

으로 매우 의도적으로 조율되어 있다.2. 서사 구조 분석(편집자 관점)① 초반부: ‘행운’의 반복 강조돈을 버는 장면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다.편집자 시점에서는 이 반복이 과잉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삭제 대상이 아니다.이유: 독자가 “이번엔 정말 다르다”라고 믿게 만들기 위한 세뇌 구간이기 때문.☞ 이 구간은 서사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 감정의 관성을 만들어낸다.② 중반부: 윤리적 균열의 노출김첨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폭력적이다.선악 구도가 명확하지 않다.편집자 입장에서 이 모호함은 매우 중요하다.이 작품은 “불쌍한 사람 = 선한 사람”

이라는 통속적 도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독자는 김첨지를 연민하면서도 끝까지 완전히 옹호할 수 없다.

이 불편함이 작품의 품격을 유지시킨다.③ 지연 장치: 술집 에피소드 편집자라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지 않나?”를 고민할 부분이다.그러나 이 장면은 절대 삭제 불가다.이유: 비극 직전의 거짓된 해방감독자의 예측을 끝까지 배반하는 시간 끌기 장치·돈’이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장면☞ 편집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서사 낭비가 아니라

비극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압축하기 위한 완충재다.3. 문체와 시점에 대한 편집자 평가▪ 문체구어체, 욕설, 반복적 감탄이 많다.현대 기준으로 보면 거칠다.그러나 이 거침은 정제 불가능한 현실성이다. 편집자는 이 문체를 다듬는 순간 작품의 생명력을 잃는다는 걸 안다.

☞ “깔끔한 문장”으로 고치면 이 작품은 죽는다.▪ 서술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감정 이입은 철저히 제한됨작가는 김첨지를 변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이 거리감 덕분에 독자는 인물의 비극보다 그 비극을 가능하게 만든 가난·노동·사회 구조를 보게 된다).4. 결말 처리: 편집자 관점의 최고 완성도 구간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이 마지막 문장은 편집자의 입장에서 완벽한 엔딩이다.설명하지 않는다(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교훈을 말하지 않는다.☞ 모든 감정은 독자에게 미뤄진다

이것이 이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이유다.5. 종합 편집 평가 편집자 관점에서 이 작품은: ✗ 군더더기 많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 계산된 잔혹함을 가진 구조물 수정 제안? 없다.현대 독자를 고려해 주석은 달 수 있어도 문장은 손대면 안 된다.이 작품은 “잘 쓴 이야기”가 아니라 편집으로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완성된 이야기다.

어느 문장에서 발생했는지 말해줘

편집자 관점에서 결정적 효과(아이러니·비극 인식)가 발생하는 지점은 한 문장이 아니라, 명확한 단계별 문장 묶음으로 형성된다. 정확히 짚어주면 다음 3지점이다.① 최초의 비극 예감이 발생하는 문장(독자가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최초 지점)“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해석이 문장은 서사의 운명을 이미 고정시킨다.이후 어떤 ‘행운’도 이 부탁을 덮지 못하게 된다.편집적으로 보면, 이 문장이 있는 순간

결말은 변경 불가능해진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마지막 비극은 ‘우연’이 되지만,

이 문장으로 인해 비극은 선택의 결과가 된다.② 독자의 감정이 완전히 배반되는 문장(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이 거짓임을 확정하는 지점)“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해석이 문장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먼저 던져진다.그래서 독자는 “취중 헛소리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한다.이때 독자는 작가의 함정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다.☞ 편집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장은 진실이 아니라 ‘예고’다. ③ 비극이 확정되는 최종 문장 (엔딩 트리거)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해석이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인식의 붕괴다. ‘운수 좋음’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뒤집혀 돌아온다. 편집적으로 보면 이 문장 하나로 제목·서사·주제가 동시에 닫힌다. ↗ 이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아왔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정리 (편집자 관점 결론) 단계 발생 문장 기능 예감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비극의 필연화 배반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감정적 함정 확정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주제 완결 질문에 대한 직답:

↗ 비극은 마지막 문장에서 폭발하지만,
↗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원하면, 이 구조를 에디터용 주석 /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줄 수도 있다.

에디터용으로 더 자세히 말해줘 █ 에디터용 정밀 분해대상 작품: 운수 좋은 날 A. 비극이 ‘결정’되는 문장 (서사 불가역 지점) ● 문장“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판단이 문장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서사 계약이다. 이 이후의 모든 사건은

→ 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의해 해석된다. 에디터 메모 █ 핵심 주석 포인트 “이 문장 이후 결말은 바뀔 수 없음” █ 하이라이트 유형 △ 비극 필연화 트리거 █ 삭제/축약 절대 불가이 문장이 빠지면 작품은 단순 불운담으로 전락함 B. 독자의 판단을 흐리는 문장 (감정 조작 지점) ● 문장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판단이 문장은 사실 전달이 목적이 아님기능은 단 하나:

→ 독자가 진실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에디터 메모 █ 핵심 기능진실을 놓남·주정으로 위장 █ 주석 방향 “작가는 이 시점에서 독자에게 진실을 줬지만, 믿지 못하게 만든다” █ 에디팅 시 주의강조 표시

✗ 담담하게 유지해야 효과 발생 C. 시간 지연 장치 (비극 연기 구간) ● 문단술집 장면 전체 (치삼 등장 이후 ~ 귀가 직전)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판단서사상 가장 길지만 가장 계산된 구간기능: 비극 인지 지연독자의 방심 유도주인공의 윤리적 과탄 노출에디터 메모 █ 절대 축약 금지 █ 하이라이트 포인트 “행운이 타락으로 변질되는 과정” █ 편집자 관점 핵심여기서 독자는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믿음 D. 비극이 ‘확정’되는 감각 문장 (사실 확인 지점) ● 문장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판단직접적인 사망 선언보다 훨씬 강력독자가 스스로 “아, 이미 끝났구나”라고 깨닫는 문장에디터 메모 █ 감각 서술 강조 █ 주석 키워드: 부재의 서술소리의 소멸 █ 이 문장은 감정적 해석을 붙이지 말 것 E. 최종 엔딩 트리거 (주제 봉인 문장) ● 문장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현진건-운수좋은날+B3356-개벽편집자 판단이 문장은 설명·후회·교훈이 아님제목, 서사, 상징이 한 번에 접하는 문장에디터 메모 █ 엔딩 주석 필수 “제목의 의미가 이 문장에서 뒤집힘” █ 후속 해설 최소화독자가 감정을 회수할 시간을 줘야 함 ↗ 에디터용 최종 정리 표구분 문장 기능 편집 판단 A 비극 결정 서사 불가역 B 인식 교란 감정 조작 C 시간 지연 방심 유도 D 사실 인지 감각 확인 E 주제 봉인 완결 선언 ☯ 에디터 관점 결론 (중요)이 작품은 사건이 아니라 문장 위치로 설계된 비극이다. 에디터의 역할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 “어디서 이미 끝났는지”를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게 돋는 것이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 하이라이트 색상 체계 ◇ 에디터 주석 문구 초안 ◇ 독자 혼란 지점 자동 탐지 기준 ⇒ 어느 문장에서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장기소설일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편집자가 아닌 독자 시점으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하다

⇒ 3번을 거쳤음에도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 이를 페르소나를 수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하며, 이마저도 부정확할 수 있다.

█ 종합 분석 리포트 (Chief Editor)[1. 종합 진단 요약] 최종 판정: ● 재작성 권고한 줄 요약: 협오/차별 표현, 트라우마 유발 요소, 논리적 비밀관성, 장르 클리셰, 독자 혼란 등 다층적 문제로 인해 현대적 교육

자료 및 문학적 완성도 측면에서 심각한 개선이 필요함.[2. 에이전트별 상세 피드백] 서사/장르 분석관주요 이슈: 장르 클리셰(3건): [문장 3] "운수 좋은 날" 클리셰는 비극 예고 장치로 빈번히 사용되어 고급 독자에게 식상함을 유발.[문장 11] "빈곤으로 인한 치료 불가" 모티프는 사회 리얼리즘에서 반복 사용되어 독창성 저하.[문장 134] "불길한 침묵" 기법은 비극 서사에서 과도하게 활용된 패턴. 역사적 맥락 부재: 19세기 유럽 문학 전문가와 한국 근대 소설 독자 모두에게 시대적 정체성(예: 식민지 시대 언어/계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말투/표현 감사관주요 이슈: 어조 불일치(6건): [문장 3] "이 날이야말로" → 구어적 표현이 원작의 절제된 문체와 충돌.[문장 35] "눈시울도" → 감상적 어조가 현진건의 객관적 서술과 대비됨.[문장 101] "화증을 내며" → 현대적 표현이 시대적 정체성과 불일치. 비유적 표현의 모호성:[문장 25] "주홍이 덧는 듯" → 비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독자의 상상력 제한. ⓘ 인과/논리 검증관주요 이슈: 개인성 부족(2건): [문장 108] 아내의 죽음 복선(아이의 빈 젖 빨기)과 김첨지의 설령탕 구매 행동 간 인과 관계 부재.[문장 134] 술집 폭음 후 갑작스러운 방 열기 → 정신적 혼란 상태 반영이지만 동기 불명확. ⓘ 윤리/안전 관리자주요 이슈: 혐오/차별 표현(28건): 고종요도 표현:[문장 114] "남 귀치않게" → 남성 중심적 시각 강화.[문장 175] "에미를 불을" → 가족 모욕 및 사회적 금기.[문장 217] "깍쟁이 같은 년" → 성적 비하 요소 포함. 트라우마 유발(27건): 고종요도 표현:[문장 24] "빼만 남은 얼굴" → 극심한 빈곤/질병 묘사로 심리적 압박.[문장 112] "온몸이 용송그려지며" → 신체적 무력감 과도 묘사.[문장 264] "발길로 찬다" → 폭력적 행위 직접적 묘사. ↗ 가상 독자(페르소나) 반응주요 혼란/질문: 맥락 부재:[문장 10] "모주" → 설명 없이 등장해 상상력 제한.[문장 31] "학생" → 갑작스러운 등장. 문화적 이해 필요:[문장 7] "십전짜리 백동화 서 품" → 당시 화폐 단위 설명 필요.[문장 21] "조밥 vs 설령탕" → 서민 식생활 관계 설명 필요.[3. 최종 메트릭 및 개선 우선순위] 핵심 리스크 혐오/차별 표현(28건): 여성, 사회적 약자, 직업군에 대한 비하 표현이 교육 자료로서 부적절하며 문학적 완성도 저하. 트라우마 유발 요소(27건): 폭력, 질병, 절망감 묘사가 독자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 수정 방향 제안 혐오 표현 전면 수정: "오라질년", "깍쟁이 같은 년" 등 여성 비하 표현을 중립적 서술로 변경. "거지", "인력거꾼" 등 직업군 편견을 반영한 표현을 사회적 맥락 설명과 함께 재구성. 트라우마 요소 완화: "빼만 남은 얼굴", "발길로 찬다" 등 생생한 폭력/질병 묘사를 상징적 표현으로 대체. "불길한 침묵" → "무거운 침묵"으로 변경해 부정적 정서 완화. 논리적 일관성 강화: 아내의 죽음 복선과 김첨지의 행동 간 인과 관계 명확히 연결(예: 설령탕 구매 전 아내의 상태를 인지하도록 수정). 독자 혼란 해소: "모주", "충덩충덩" 등 문화적 맥락을 각주 또는 설명으로 추가. 어조 통일: 현진건 원작의 절제된 문체를 유지하며 현대적 감성과 조화(예: "눈시울도" → "눈가가 붉어졌다"). 최종 권고: 재작성 시 윤리적 안전성, 문학적 완성도, 독자 접근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함. 특히 교육 자료 활용 가능성은 고려해 혐오 표현과 트라우마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함. ⇒ 어느 문장에서 일어났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며, 시각,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설정을 직접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복수의 페르소나 선택이 가능하다.
⇒ 7개의 방면에서 다양하게 문서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단순 LLM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된다.
타임탁리뷰현진건 작가님의 '운수 좋은 날'은 주인공 김첨지의 비극적인 하루를 통해 가난과 운명의 아이러니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은 김첨지의 내면 갈등과 외부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사실주의적 문체를 통해 독자가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비극적 아이러니를 강렬하게 느끼도록 이끕니다. 평가플롯(5 / 5): 김첨지의 '운수 좋은 날'이 점차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비극적 결말의 필연성을 강화합니다. #비극적아이러니 #치밀한구성캐릭터(5 / 5): 김첨지는 아내에 대한 애증과 연민, 돈에 대한 절박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그의 행동과 대사는 인물의 깊은 내면을 설득력 있게 드러냅니다. #입체적캐릭터 #심리묘사세계관(5 / 5): 일제강점기 서울의 인력거꾼이라는 구체적인 직업과 당시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가난과 고통이 만연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몰입감을 높입니다. #사실주의 #시대상반영독창성(5 / 5): '운수 좋은 날'이라는 역설적인 제목과 그에 따른 비극적 전개는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과 사회적 모순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역설적주제 #비극적운명몰입도(5 / 5): 김첨지의 감정 변화와 사건의 전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독자가 그의 여정에 함께하며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비극적 긴장감에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감정선몰입 #긴장감고조구조(5 / 5): 김첨지의 수입이 늘어나는 과정과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이 교차되며 점증적으로 대비되는 구조는 이야기의 비극성을 극대화합니다. #점충적대비 #교차서술문체/표현(5 / 5): 간결하면서도 생생한 묘사와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사, 그리고 비속어의 사용은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생생한묘사 #사실적대화리뷰 분석 강점비극적 아이러니의 심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과 김첨지의 연이은 수입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독자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운명의 잔혹함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 묘사: 김첨지가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면서도 설령탕을 사다 주려는 마음, 돈을 벌면서도 불안해하는 모습 등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과 인간적인 면모를 섬세하게 보여주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사실주의적 배경과 생생한 묘사: 비 오는 날의 거리 풍경, 인력거꾼의 고된 노동, 가난한 집안의 냄새 등 오감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묘사는 독자가 1920년대 석민지 조선의 현실에 몰입하고 김첨지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대사와 행동을 통한 감정 전달: 김첨지가 술집에서 보이는 허세와 갑작스러운 울음,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부정하는 모습 등은 직접적인 설명 없이도 인물의 절망과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독자에게 깊은 감정적 울림을 줍니다. 약점일부 비속어 사용의 몰입 방해: 김첨지의 대사에서 사용되는 일부 비속어('오라질년', '젠장맞을 년' 등)는 인물의 절박함과 거친 성격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현대 독자에게는 다소 과격하게 느껴져 일시적으로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의도한 사실주의적 묘사의 일환이나, 독자의 감정적 공감을 유지하는 데 미묘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비속어 사용의 미묘한 조정: 김첨지의 거친 언행을 유지하되, 일부 비속어의 반복적인 사용이나 강도를 미묘하게 조절하여 독자의 감정적 몰입을 더욱 원활하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물의 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독자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면 독백의 활용: 김첨지의 불안감이나 아내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직접적인 대사 외에 짧은 내면 독백으로 추가하여, 그의 심리적 깊이를 더욱 강조하고 독자가 인물의 고뇌에 더 깊이 공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안1.

김첨지의 불안감 강조✓ 캐릭터 — 내면 갈등 심화, 독자의 감정적 연결 강화. 불안감의 시각화: 김첨지가 돈을 벌면서도 느끼는 불안감을 단순히 '겁이 났다'는 표현을 넘어, 그의 신체적 반응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김첨지의 심장은 불길하게 쿵쾅거렸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이 캥기었다.

80nbsp;(19)2. 아내의 애원하는 모습 강화✓ 캐릭터 — 아내의 절박함 부각, 김첨지의 죄책감 미세한 암시. 애절한 시선 묘사: 아내의 눈빛에 담긴 애절함을 더욱 섬세하게 묘사하여, 김첨지가 느끼는 죄책감과 갈등의 씨앗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병인은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웁푹한 눈에 말없이 애원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102nbsp;(25)3. 김첨지의 허세와 내면의 대비✓ 캐릭터 — 인물의 복합성 강조, 비극적 아이러니 심화. 허세 속 불안감: 술집에서 돈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는 김첨지의 모습과 그 이면에 깔린 불안감을 미묘하게 대비시켜, 그의 복합적인 심리를 더욱 부각할 수 있습니다. "삼십원을 벌었어, 삼십원을! 이런 젠장맞을! 술을 왜 안 부어? 팬찮다 팬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씹쓸한 생각은 애써 밀어냈다."

116nbsp;(29)4. 아내의 죽음 직전 침묵의 불길함✓ 몰입도 — 긴장감 고조, 비극적 예감 강화. 침묵의 무게감: 집 안의 정적을 더욱 불길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김첨지와 함께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깨뜨린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빡빡 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짓 빼는 소리가 날 뿐이다. 그 소리마저도 어딘가 텅 빈 듯, 생기 없는 울림이었다.

122nbsp;(31)5. 김첨지의 절규에 담긴 비극성✓ 플롯 — 비극적 클라이맥스 강화, 감정적 폭발. 절규의 반복과 강조: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김첨지의 절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그의 충격과 절망감을 극대화하고 독자에게 강렬한 감정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77nbsp;(18)

어느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 발생 지점 분석 (Problematic Points Analysis) 제시된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뛰어난 작품이지만, 몇몇 부분에서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순가락은 고 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뼈았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맹긴다 배가 켕긴다고 눈을 흡,, 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먹어병 먹어서병 어찌,! 란 말이야 왜눈을바루뜨지못해!", ! 하고 않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문제점: 이 부분은 아내가 밥을 먹다가 체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김첨지의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이 다소 과장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김첨지의 격한 반응이 동시에 제시되어, 독자가 아내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김첨지의 거친 행동에 먼저 시선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랄병'과 같은 표현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으나, 현대 독자에게는 다소 거칠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 . 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 ,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 .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염습해 오는 무시 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문제점: 김첨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거칠게 부르는 장면은, 그의 불안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하다'는 서술자의 개입과 '허장성세'라는 직접적인 설명이 독자의 해석을 제한하고, 김첨지의 복합적인 심리를 파고들 여지를 줍니다. 이러한 설명보다는 그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 하며 떨어진다.“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 . .”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 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빠라 봐 이더러운놈들아 내가돈이없나 다리뼈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의 주위 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엣돈 이 육시를 할 돈 !!"문제점: 김첨지가 술값으로 돈을 던지고, 친구가 주워주는 돈을 받으며 욕설을 하는 장면은 그의 취중 만취 상태와 돈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돈을 던지는 행위와 욕설이 이어지는 과정이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나열되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다리뼈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와 같은 표현은 그의 분노를 드러내지만, 맥락상 다소 과격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선 제안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아내의 고통과 김첨지의 반응 묘사: 수정 제안: 김첨지의 격한 반응을 줄이고,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좀 더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연민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아내는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만 움켜 뺨이 불룩해지도록 허겁지겁 먹었다. 그날 저녁부터 가슴과 배를 움켜쥐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하는 아내를 보며 김첨지는 답답한 마음에 “에이, 오라질년. 못 먹어 병인지, 먹어서 병인지.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며 앓는 아내를 다그쳤다.

179(43) 김첨지의 불안감 묘사: 수정 제안: 서술자의 직접적인 설명 대신, 김첨지의 행동이나 내면의 깊은 독백을 통해 불안감을 암시합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김첨지는 전에 없이 목청을 높였다.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그 고함은 집 안의 무시무시한 침묵을 깨뜨리려는, 혹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는 헛된 외침이었다.

126(29) 술집에서의 행동 묘사: 수정 제안: 김첨지의 행동에 좀 더 명확한 심리적 동기를 부여하고, 과격한 표현을 다듬어 그의 복합적인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김첨지는 술값으로 일 원짜리 지폐를 중대가리 앞에 톡 던졌다.“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던지나.” 치삼이 은전을 줍는 동안, 김첨지는 취한 눈으로 돈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 듯 고개를 떨궜다. “이까짓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는 놔까리며, 치삼이 건네는 돈을 헥 낚아채며 쏘아붙였다.“이 원수엣돈, 이 육시를 할 돈!”

212(54) 텍스트의 강점과 약점 균형 (Balancing Strengths and Weaknesses)'운수 좋은 날'은 한국 근대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그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의 비극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김첨지의 거친 언행과 행동은 당시 빈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력거꾼의 현실을 반영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라질 년', '젠장맞을 년'과 같은 비속어 사용은 인물의 절박함과 거친 성격을 드러내며,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부 표현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작가가 의도한 시대적 배경과 인물 묘사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개선 제안은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 독자의 감정적 몰입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 프롬프트 수정 역할 정의 변경: “너는 AI 분석가야” → 너는 [장르] 전문 편집자 이자, [페르소나]를 대변하는 독자야. 분석 단위 명시: “글을 요약해” → 각 문장별로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 하이라이트 후보로 추출해. 문학적 허용 주입: “비속어를 찾아” → 단순 비속어가 아니라, 서사 맥락 없이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구분해 ① tone_agent.py (어조 분석) 현재: 일반적인 문체나 격식체 여부 확인. 수정: 웹소설의 '문체 미학'과 '가독성' 중심. (예: 설명 조지 양, 보여주기 기법 확인, 인물의 캐릭터성이 대사에 묻어나는지 확인) ② logic_agent.py (개연성/논리) 현재: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 확인. 수정: '설정 오류(Plot Hole)'와 '캐릭터 붕괴' 중심. (예: 앞선 요약본과 대조하여 설정 충돌 확인, 인물의 동기 부여가 충분한지 분석) ③ GenerCliche_agent.py (장르/클리셰) 현재: 장르적 특징 나열. 수정: '상업적 재미'와 '클리셰 비틀기' 중심. (예: 너무 뻔한 전개인지, 독자가 기대하는 '보상'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지 분석) ④ reader_persona_node.py (또는

관련 에이전트)현재: 일반적인 타겟팅. 수정: '감정 상태'와 '기대치' 중심. (예: "이 독자는 지금 주인공이 복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과 같은 상태를 주입)